

세계의 양돈산업 동향과 2001년도 한국 양돈산업 전망

이 글은 지난 4월 26일 미트저널사가 주최한 「육류시장 대전망」 세미나 중 정P&C 연구소의 정영철 소장이 발표한 내용을 발췌 수록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

1. 세계의 돈육 생산과 수출

(1) 급격히 증가하는 세계의 돈육 생산

세계의 돈육 생산량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6천580만톤에서 8천235만톤으로 1천655만톤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과 한국의 수요증가로 북미주의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1인당 돈육 소비량은 31.5kg에서 34kg으로 1인당 소비량이 약 28kg인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덴마크, 대만과 경쟁하는 미국과 캐나다 돈육 수출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켜왔다. 2001년 새해 세계의 돈육생산은 지난해보다 2.5%증가한 8천44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1). 세계적으로 주요 돈육 생산지역은 크게 유럽의 EU연합국, 중국, 북미의 3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3대지역이 전 세계 돈육 생산량의 약

82%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돈가를 좌우하는 돈육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지역은 EU연합국과 북미지역이다. 중국은 전 세계 돈육생산량의 약 절반을 생산하지만 계속되는 경제성장으로 국내 돈육 수요를 충족하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더구나 구제역 발생국가로 돈육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세계의 돈육 수출지역 이동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연간 돈육 수출은 연간 120-130만톤을 유지하여 지금까지 세계의 돈가에 크게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의 돈육 수출이 2001년도에 140만톤에 달할 전망이어서 EU국가들의 수출량을 초과하면서 북미지역의 돈육 생산량이 세계돈육 시장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단일 국가 단위로는 덴마크가 2000년도에 약 50만톤 수출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57만5천톤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카나다는 최근 3년간 돈육수출이 2배

로 급증하면서 2001년도에는 77만7천톤의 돈육 수출이 예상되어 미국의 2001년도 62만3천톤 수출 예상량을 훨씬 초과하여 세계 돈육 수출 1위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북미지역의 돈육 생산과 수출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동물복지, 환경오염등의 문제로 향후 돈육 생산과 수출의 증가율이 극히 적거나 감소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1년도 미국과 캐나다의 돈육 생산이 전년비 각각 3.4%, 5.9%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0.7%의 소폭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2. 미국의 2001년도 돈육생산과 수요

(1) 미국 - 계속 증가하는 모돈두수

미농업부가 발표한 모돈두수는 본지가 추정한 경산돈 및 미경산돈 도축두수와 일치하며 6월 이후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1995~1999년도의 경우 9월 모돈두수는 6월보다 109,000두 감소하였다. 금년 미농부성이 집계한 모돈두수는 6월보다 32,000두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 6월 모돈두수에 비해 약 2%정도 증가한 것이다. 미국 양돈산업의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미국 양돈 생산은 약 4% 증가하였다. 지난 6월까지 12개월 동안 5%이상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00년 대비 2001년과 2002년의 3% 생산 증가로 2002년에는 두축두수가 약 1억470만두에 달할 것이다.

(표 1) 미국의 분기별 6대 시장출하돈가 및 예측치

년 도	분기	시장출하두수 (백만두)	거세돈 및 미경산돈 가격(센트/파운드)
1999	1	25.579	26.55
	2	24.288	32.95
	3	24.953	32.78
	4	26.724	33.88
	전체	101.544	31.54
2000	1	25.019	39.11
	2	23.106	47.99
	3	24.100	44.00
	4	26.475	38~41
	전체	98.700	42~43
2001	1	24.850	39~42
	2	23.100	43~46
	3	25.050	37~40
	4	27.600	29~32
	전체	100.600	37~40

최근 미국 농경제학자 로렌스 교수가 발표한 연도별 양돈농가의 손익을 보면 98년도에는 비육돈 1두 출하당 26달러 88센트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한편, 미국 최대의 도축육가공업체인 IBP는 98년도까지의 사상최고 128억달러 매출에 이어 99년도에는 더 많은 141억달러 매출에 3억2,1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순익을 올렸다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 IBP의 주가는 뉴욕상장시장에서 1년새에 77%나 상승하였다.

(2) 양돈생산자 조합의 구성

조합 설립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새로운 조합은 기존의 조합과는 다른 형태의 전국 규모이다. 또한 양돈산업, 육가공산업에만 국한한 전문업종 조합이 아닌 양돈에서 외식산업까지의 광범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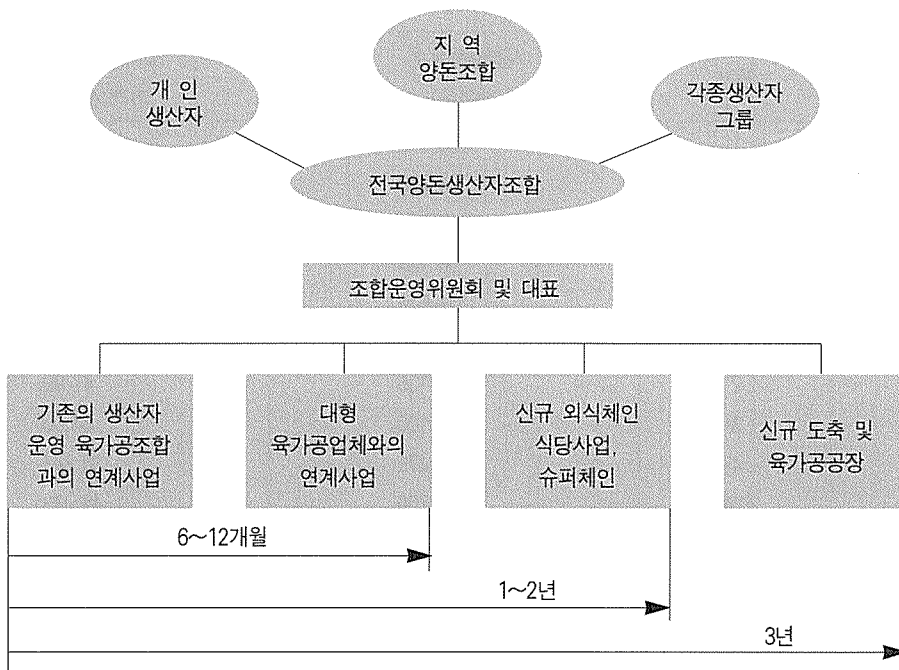
사업영역을 추구하는 조합으로 밝혀졌다. 조합의 주인은 개인 양돈농가 및 기존의 지역 및 특수 양돈조합, 양돈생산자의 그룹이 된다(그림 1).

(3) 양돈생산자 조합의 목적과 사업영역

당초 생산자 소유 도축육가공업의 설립이 목적이었던 것이 조합설립위원회의 거듭된 연구와 검토결과 새로운 조합은 돼지와 돈육의 판매가를 극대화시키고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목표로 하지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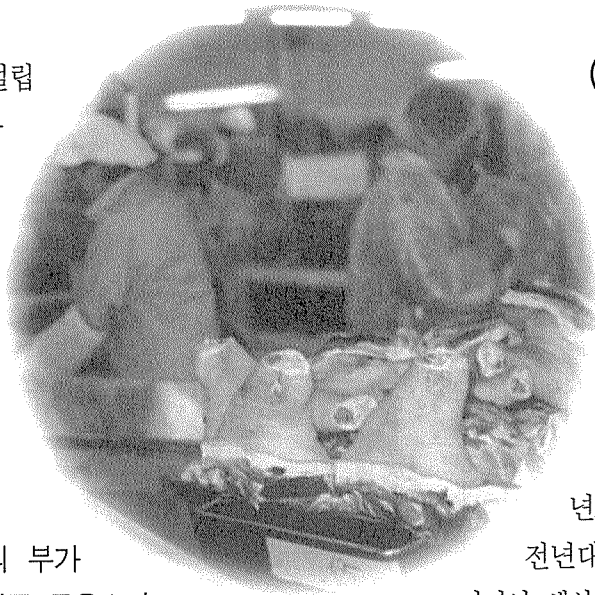
① 안정적인 비육돈 수요처 확보 목적

기존의 도축 및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예:Farmland)과의 비육돈 공급계약을 통한 사



(그림 1) 전국양돈생산자조합의 조직

업으로, 이 사업은 설립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기존의 대형 육가공업체와 생산자 조합원을 대항하여 비육돈 공급 장기계약사업도 6 ~ 12개월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② 소매단계 돈육의 부가 가치 제고 및 신규 돈육소비 수요개발과 확대

최고급 돈육 품질을 가공에서 외식산업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체인 레스토랑사업에 진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고급 품질의 돈육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 슈퍼체인을 설립 후 1~2년이내에 진출한다. 이를 위하여 조합 소유의 특수돈육 브랜드 1~2개를 창출한다.

③ 판매 비육돈의 부가가치 제고

조합원의 비육돈 판매가격을 높임은 물론 안정적인 도축과 가공라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도축 및 가공공장을 설립한다. 이 사업은 설립 후 약 3년이 소요된다. 또한 이 공장을 통하여 돈육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발 노력도 한다.

3. 캐나다의 2001년 돈육 수급과 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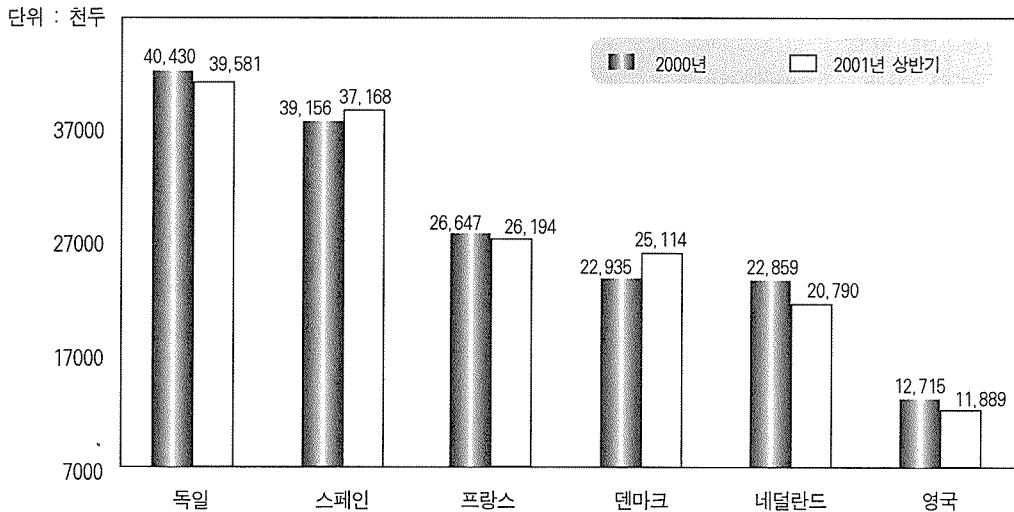
(1)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전망

캐나다정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2000년 10월 1일 전체 사육두수는 1,220만두로 전년동기보다 약 1% 감소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2000년도 3/4분기 분만모돈은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다.

여기서 생산된 돼지는 2001년 상반기중에 시장출하될 것이다. 따라서 2001년도 상반기중의 돈가하락예상으로 인해 2000년도의 4/4분기의 분만예정두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다. 수출물량을 포함한 2000년도의 시장출하두수는 연간 3.3% 증가한 2,380만두로 예상되며, 2001년은 다시 추가로 1.8% 정도 증가한 2,423만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도축두수와 돈육수출

최근 캐나다의 도축두수 증가는 1999년도의 1,890만두에서 2000년도의 1,960만두로 3.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돈육가공업체의 파업이나 공장폐쇄와 같은 일만 없다면, 캐나다 돼지도축두수는 2001년도에 연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양돈사육두수와 출하두수 증가를 소화해내기 위해 돈육가공업체들은 도축시설을 이미 확장했거나 예정중이다. 캐나다 국내도축시설 증가로 2000년과 2001년도의 비육돈 생산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유럽의 국가별 생산전망(2000년, 2001년 상반기)

(3) 돈육 생산 및 수출

캐나다 돈육생산은 1999년도에 전년대비 14% 증가한 160만톤이었으며, 2000년과 2001년도에 각각 전년대비 5.5% 및 3.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의 국내돈육 소비량은 돈육 가격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2.3% 감소할 것이다. 돈육수출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2000년과 2001년도 수출증가율이 전년비 각각 15%와 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 유럽연합(EU)의 돈육수급 전망

(1) 공급전망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돈육 생산량은 2000년 대비 1% 감소한 1천739만톤이고 상반기에 전년대비 1.5% 감소가 전망된

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벨지움,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2000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스페인, 덴마크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의 주요 생산국인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생산량은 각각 410만톤, 300만톤, 227만톤으로 전망되었다. 생산량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양돈 농가들이 1998년과 1999년의 과잉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사육두수와 도축두수를 줄였기 때문이고 낮은 가격과 환경문제에 대한 압박감도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줄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영국의 경우 14년만의 돼지 콜레라 발생, 구제역의 발생, 파운드고, 유로화 하락등의 원인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사료비와 인건비가 비교적 낮고 돈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는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5. 일본의 2001년 돈육 수급과 가격 전망

(1) 2000년도 돈육수급실적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량은 1989년 이후 200만 톤~210만톤대 사이에서 증감을 되풀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00년의 일본 국내생산은 1.1%감소한 126만톤으로 추정되고 최근 98년의 최저 생산수준을 갱신한 한편 수입량은 5.4%의 증가한 신장이 예상된다. 이것은 과거 최대수입량 93만2천톤을 기록했던 96년이후 가장 많은 돈육수입량으로 90만3천톤 수준이다.

(2) 수요전망

2001년도 EU의 돈육 수출은 수출 보조금의 증지로 인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고 특히 광우병으로 인한 돼지고기의 쇠고기 수요대체로 EU 지역내 강한 수요로 수출은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3) 가격동향

이런 전망들을 통해서 생산량의 미증현상이 전망되지만 돈육수급은 큰 변동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수요가 돼지고기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광우병 파동이 오래 지속된다면 돼지고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돈육소비

일본의 2000년도 총돈육 소비량은 216만5천톤대(전년대비 1.5% 증가)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단 97, 98년 연속 감소한 적도 있어, 수량만으로는 아직 96년을 약간 하회한다. 일본의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줄지도 늘지도 않는다」는 정체적 한계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공급순식료)은 13년 전인 87년도 10kg에 처음으로 이른 이후 96년도의 10.5kg가 최고로, 최근 10kg대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99년의 육류별 소비구성을 보면 쇠고기의 가계소비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돼지고기의 가계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가공용에 대해서는 햄·소세지류의 생산량이 정체하고 있다. 일본의 수요처별 돈육소비비율을 보면 가계소비 40%, 가공 30%, 외식기타 30%라는 패턴에 변화는 없다.

(3) 2001년 돈육 수입 전망

① 국내생산

1990년 이후 환경 문제나 후계자 부족의 영향도 있어 일본의 돈육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97년부터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추세되었다. 그러나 99년부터 다시 근소하기는 하지만 전년 생산수준에 미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생산감소 배경을 보면 소규모층을 중심으로 97년까지 매년 10%가 넘는 비율로 사육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2001년도 역시 돈육생산은 농가호수가 여전히 계속 감소하고 사육두수도 규모확대가 농가호수 감소폭을 커버하지 못해서 돈육생산 감소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내돈육 생산은 자돈생산용 암돼지의 사육두수가 다시 감소경향에 향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지만, 비육돈의 출하두수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감소하더라도 소폭으로 예상. 지육 기준으로「120만~130만톤」의 사이로 추정된다.

② 돈육수입

1989년 이후 돈육총소비량이 거의 수평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생산 감소량을 보충하는 수입돈육의 공급이 증가하여 왔다. 99년 수입량은 85만7천톤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로 2자리 숫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연초 재고수준이 저하한 적도 있어 냉장육을 중심으로 수입을 늘렸다. 이 중 냉장육은 24만6,000톤(19.0% 증가), 냉동은 61만천톤(18.8% 증가)으로 모두 2자리 숫자로 증가. 냉장육은 정육용 외에 외식이나 업무용 용도로의 수요 신장 되고 있다. 2000년의

수입량도 99년과 같은 추세를 보여서 합계 90만 3,000톤대로 작년에 비하여 5.5% 정도의 증가로 추정된다. 2000년의 주요 나라별 수입량(추정)은, 덴마크가 28만9천톤(전년대비 17.8% 증가), 미국 26만3,000톤(전년대비 9.6% 증가), 캐나다 14만8,000톤(13.8% 증가), 멕시코 5만 4,000톤(2.9% 증가), 아일랜드 1만6,000톤(20.3% 증가)등이다. 2001년의 수입전망은 국내생산, 소비 모두 전년과 같은 수준이후가 전망되어 좋더라도 한자리 비율의 증가가 예상되는 88만~90만톤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구제역사태는 금년도 일본의 돈육 수입국가별 시장점유율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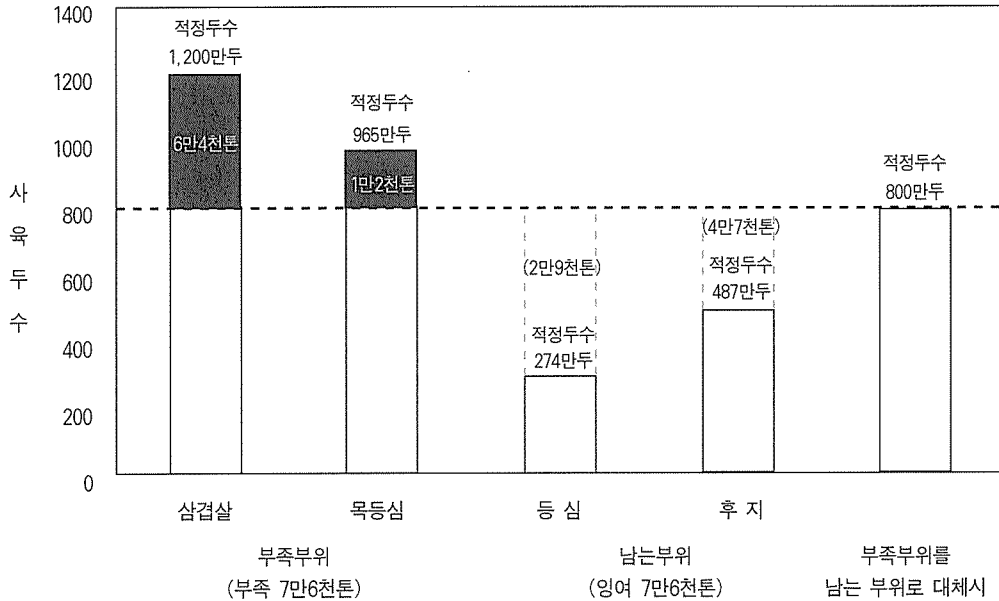
6. 한국의 양돈산업과 전망

(1) 양돈산업의 적정사육 규모 추정

99년도 돈육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생산이 모자라서 수입하고 있는 삼겹살 수요 기준으로만 볼 때 적정사육규모는 1204만 1천두이고 목등심, 전지 수요기준으로는 각각 965만 7천두, 1,18만 6천두이다. 반면에 국내생산을 수출하는 등심수요량 기준 적정 사육규모는 274만 2천두에 불과하고 안심, 후지 수요기준으로는 각각 347만두, 486만 9천두로 현재의 사육규모보다 큰 숫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국민들의 부위별 선호도가 삼겹살, 목심에서 등심과 안심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적정사육규모는 달라진다. 현재 가격기준으로 전지 수입량 38,417은 현실적으로 후지 47,365톤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추가로 남는 약

단위 : 만두



(그림 3) 돈육부위별 국내 소비량 기준 적정사육두수 추정(9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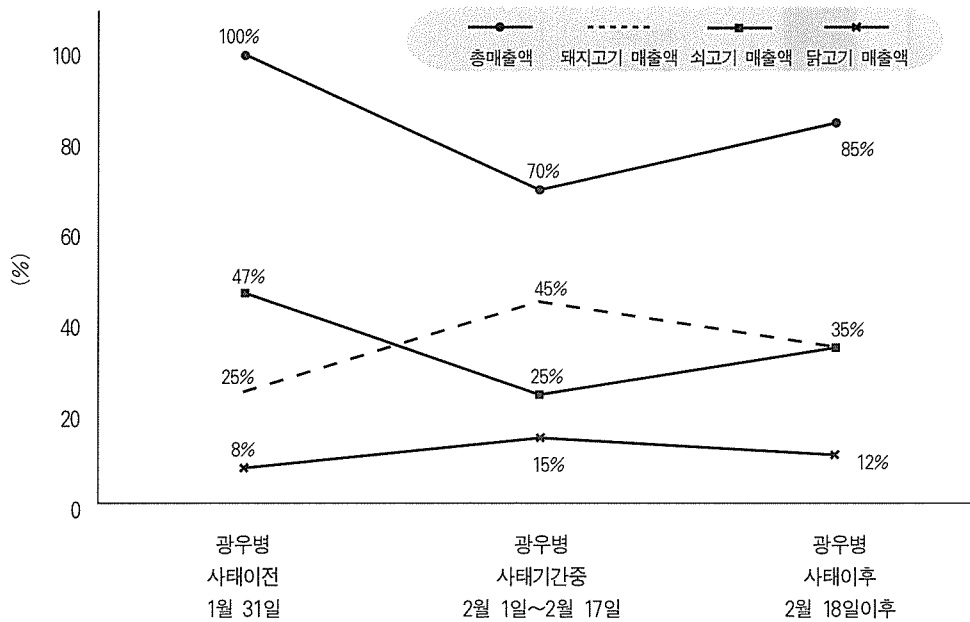
1만 1천톤도 소시지 원료용 잡육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어서 단지 등심과 안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일 수입삼겹살과 목등심량을 남는 등심과 안심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결국 삼겹살 4만 3천톤이 모자라고 이 수량만큼만 수입에 의존한다면 적정 사육두수는 965만두가 되는 것이다. 거꾸로 현재의 사육두수를 적정사육두수로 850만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생산되는 나머지 전부위가 원활하게 소비되고 삼겹살 또는 목등심을 포함 6만 3천 7백톤만을 수입하면 된다. 또한 만일 수입물량 6만 3천 7백톤을 부위에 관계없는 국내산돈육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한다면 적정 사육규모는 약 919만두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재의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매년 약 6만톤 전후의 삼겹살을 수입하는 것이므로 가장 급선무는 소비자들이 등심과 안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들 부위의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이다. 사육규모를 지금보다 10% 줄인다면 99년 소비형태를 기준으로하였을 때 등심과 안심의 남은 수량 32,900톤은 9,850톤이 감소한 2만 3,050톤이 되고 삼겹살과 목등심 생산아 21,740톤 감소하여 돈육수입량은 6만 3천 7백톤에서 8만 5천 440톤으로 증가한다. 사육규모를 줄이면 남는 부위 적체로 인한 돈가 하락은 막을 수 있지만 삼겹살 수입은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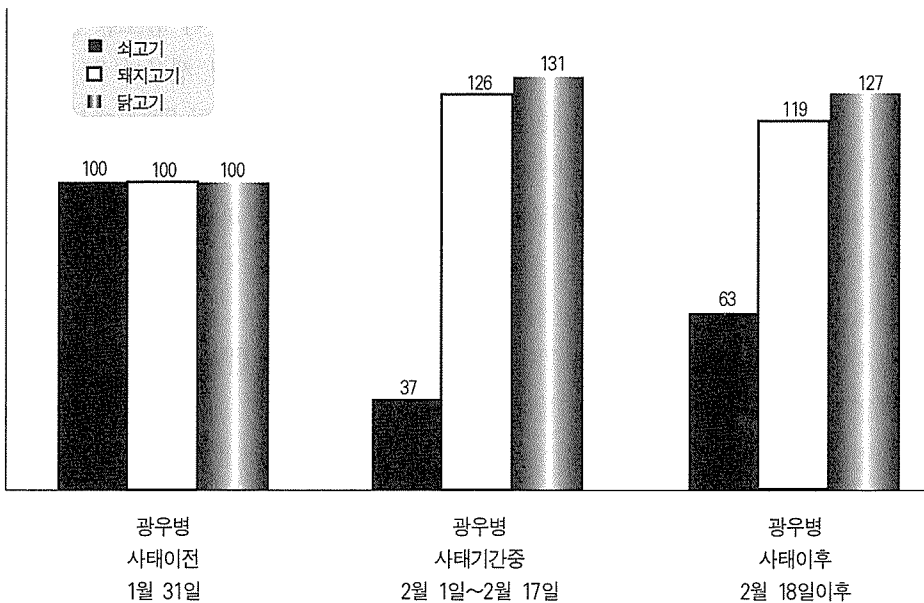
(2) 향후 돈가 전망

① 육류 제3의 요인에 의해 타격 받는 축산물 시장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이 물량과 가격변화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요인이 아닌 제3의 요인에 따라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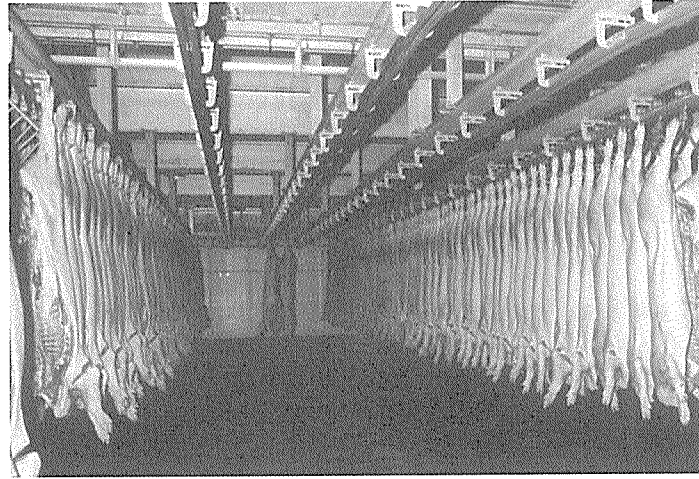


(그림 4) 광우병 사태 경과기간중 A유통의 육류 매출액 및 육류 종류별 판매비율 변화



(그림 5) 광우병 사태 경과별 육류 종류별 A유통의 매출량 변화

우병, 구제역등 육류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신문, TV등 매스컴 보도에 너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2월초부터 국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유럽에서의 광우병 사태 내용은 실제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조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류업계에 특히 쇠고기 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본 연구소가 서울에 6개 대형식육매장을 경영하고 있는 A유통체인 업체의 육류 판매 변화를 조사한 결과 광우병 사태이후 육류 매출액이 30%나 감소하였고, 특히 쇠고기의 매출량은 67%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광우병 보도가 너무 과장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보도가 현저히 줄어든 2월 18일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이 광우병 사태이전의 85%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육류종류별로는 광우병 보도로 쇠고기 수요가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많이 대체되어 돼지고기는 사태이전 보다 광우병 보도 기간중에 판매량이 26%, 닭고기는 31%나 증가하였으나 2월 18일이후에는 쇠고기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그림 5).



백만원 손해를 본 셈이다. 향후 양돈산업의 돈육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첫번째 관문은 3월을 구제역 재발 없이 무사히 넘기는 것이다. 3월은 가축의 면역능력을 낮추는 환절기의 고비인 것이다. 전력을 다하여 막아야 한다. 만일 3월을 무사히 넘긴다면 일단은 안심이다. 만일 구제역 발생이 없다면 금년 5월에 열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게 되어 6월부터 대일 돈육이 수출재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때 국내 돈가는 숨통을 트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마지막 구제역 백신이 지난해 6월이었으므로 금년 6월에는 OIE규정에 따른 청정국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백신시행국가는 반드시 OIE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내년(2002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금년 9월에 OIE의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여 청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후에 일본과 수출재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돈육수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3) 중장기 전망

① 양돈산업 수익성의 명암을 결정하는 돈육수출

오늘날의 한국 양돈산업은 대일 돈육 수출을 전제조건으로 기반이 조성된 산업이다. 대일 돈육 수출 중단으로 인한 한국양돈농가는 연간 3천 26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한 농가당 1천 369만원씩 손해를 본 셈이며, 사육규모 기준으로로는 모든 100두 농가의 경우 연간 약 5천 2